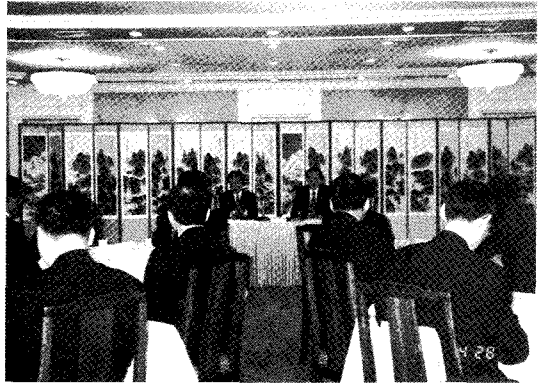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부위원장 초청 「기업 구조조정과 경쟁정책」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4월 28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李南基)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기업구조조정과 경쟁정책」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찬간담회에서 이남기 부위원장은 먼저 정부가 지난해 IMF 외환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과 기업 및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금융과 공공부문 및 노사부문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반면,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30대 기업 총수들과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합의된 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하였다. 즉, 첫째, 기업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회계공시 강화 및 회계투명성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둘째,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를 위해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채무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으며, 셋째,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계열사 매각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토록 하였으며, 넷째, 핵심기업의 설정을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고 M&A관련규제를 완화하고, 마지막으로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의 강화, 경영자의 법적 책임 제고,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조정의 5대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5대 원칙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기업의 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그를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일기업(SINGLE)의 규모나 자산가치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조정 지연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상호채무보증을 기한인 2000년 3월말까지 치질없이 해소토록 함으로써 핵심역량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남기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의지가 확고하여, 올해에도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원칙은 첫째, 핵심역량분야 즉, 주력기업으로부터의 자금이나 자산이 비주력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둘째, 어느 누가 판단하여도 청산되어야 할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셋째, 계열분리된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넷째, 그동안의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진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간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것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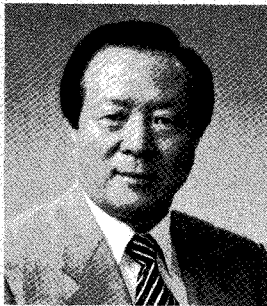
더욱 구조조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운용은 공정거래법의 본연의 목적이나 역할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남기 부위원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그런 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공정거래정책도 전체적인 정부 정책 중의 하나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많은 정부조직 중의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현재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폐지 및 지정기준이 되는 총자산규모를 다른 기준으로 바꿀 것인가 등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관리제도는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자산규모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본 조찬간담회에 대한 문의는 본 협회(T.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사 소개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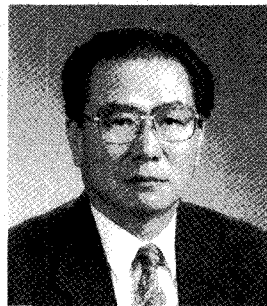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표 김재홍

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00



한국LP가스공업협회

대표 고광익

서비스업

강남구 대치3동 27-13